정읍에 유아 전용 안전체험장 조성

전북교육청, 감곡면 옛 용곽초교 일원 부지에 2028년까지 245여억원 투입

로이비쥬얼과 협약… 어린이 안전 상호 협력체계 구축 · 체험장 활성화 홍보

정읍에 유아 전용 안전체험장이 들어선다.

1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정읍시 감곡면 옛 용곽초등학교 일원 1만9,000여㎡ 부지에 2028년까지 약 245억원을 투입해 유아안전체험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유아안전체험장에는 △태풍의 위력을 느껴보고 집중호우를 피하는 풍수해안전체험관 △지진을 체험하는 지진안전체험관 △통학로 및 신호등에서 사각지대를 살펴보는 교통안전체험관 등 유아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안전 체험시설이 들어선다.

거실과 주방, 욕실, 승강기 등 집 안팎에서의 안전 체험도 할 수 있고, 소화기를 사용해 불을 끄고, 완강기를 활용한 대피 체험도 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18일 인명구조 애니메이션 로보카폴리를 제작한 ㈜로이비쥬얼과 유아안전체험장 조성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전북교육청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설계 공모 조달청 발주 의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쯤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유아안전체험장은 2028년 3월 문을 열게 된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인명구조 애니메이션 로보카폴리를 제작한 ㈜로이비쥬얼(대표 이동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유아안전체험장 조성 관련 캐릭터 무상 지원 및 어린이안전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 △안전체험과 어린이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 관련 캐릭터 콘텐트 무상 지원 △유아안전체험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은 유아 전용 안전체험장과 별도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수련원 내에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종합형 학생안전체험관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내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올 상반기에 착공되는 안전체험관에는 풍수해와 지진, 교통, 산림, 캠핑 등 분야별 안전체험이 들어선다. 또한 학교폭력과 성폭력, 약물중독 예방 등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체계적인 안전체험을 통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안전 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유아 전용 안전체험관을 설립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유아들이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응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투명한 대학문화 정착… 전북대, '청렴 옴부즈만' 출범

민간 전문가 5명 위촉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청렴하고 투명한 대학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전북대에 따르면 최근 보직 및 신임교수 임명 등 다양한 행사에서 청렴 선서를 통해 청렴한 직장생활을 다짐하고, 구성원 모두가 갑질 및 청렴서약서에 서명하는 등 청렴한 대학 만들기를 주요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제1기 청렴옴부즈만 위촉은 반부패·청렴 업무 전반에 대한 내·외부 감시와 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업무 절차를 발굴해 개선 및 시정해 나가기 위함이다.

한편 전북대는 이날 오전 11시 제1기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오창환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명예교수, 최대규 전북대 정보소재공학 명예교수, 신효균 전북도민일보 대표, 홍정훈 변호사, 구자익 전 전북대 총무과장 등이다. 이들은 향후 2년간 활동하게 된다.

18일 오전 전북대학교 대학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제1기 청렴옴부즈만 위촉식 및 2025년 1차 회의가 열린 가운데, 양오봉 총장과 청렴옴부즈만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오봉 총장은 "청렴 옴부즈만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청취해, 보다 청렴한 대학을 만들어가겠다"며 "대학 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교원 치유 · 회복 지원 프로그램 대폭 확대

전북교육청, 상시 · 월별 · 방학 중 등 세분화… 희망하는 모든 교원 참여 보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교원의 치유와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다.

1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및 직무스트레스 등으로 치유가 필요한 교원에게 상시 또는 월별, 방학 등 프로그램을 세분화해 치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교원의 선택폭을 넓혀 희망하는 모든 교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교원들의 수요와 만족도가 높았던 숙박형 치유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숙박형 치유 프로그램(함께 휴)을 통해 동료 교원 간 소통과 사례 공유, 교육활동 침해 등으로 지친 마음과 몸을 치유하고 재충전하도록 했다.

교원치유 중점학교도 70개교 운영된다. 교육활동 침해 발생, 학생 사안 및 구성원 간 갈등, 민원 등으로 학교 단위의 치유지원이 필요한 학교이거나, 전체 교원의 50% 이상 참여 희망학교, 30명 이상의 교원 참여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42개교에는 교원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된다. 그룹당 10명 이내의 소그룹 단위로 미술치료, 독서치료, 스포츠 치료, 통합치료 등 9개 프로그램 중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방학 중에도 교원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800명의 교원에게 치유와 회복 시간이 제공된다.

이 외에도 도내 53개 전문 상담 기관 및 73개 신경정신과 의원과 업무협약을 맺어 교원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선택한 상담 기관이나 병의원에서 심리상담·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교육인권센터 누리집 교권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활동 중 교권 침해, 직무스트레스 등의 찬바람에 교원들의 마음에도 감기가 들 수 있다"며 "이때 효과가 좋은 감기약처럼, 치유 프로그램을 처방해 교원들의 교육회복력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18일 전주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라운지 및 커뮤니티룸 개소식이 열린 가운데, 박진배 총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주대 자유전공학부 전용공간 '오픈'

라운지 · 커뮤니티룸 개소식… RC 공동체 활동 확대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18일 자유전공학부 라운지 및 커뮤니티룸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학생 중심의 교육혁신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공간의 출발을 알리는 자리로, 교무위원을 비롯한 교직원과 학생들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자유전공학부 라운지 및 커뮤니티룸'은 학생들이 전공 선택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RC(Residential College) 공동체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이다. 스타센터 2층 로비와 234호, 237호를 포함한 약 105평 규모로 조성, 학습과 회의, 휴식을 아우르는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자유전공학부 176명의 신입생들이 학문적 탐구와 RC 공동체 속에서 인간적 교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개소식은 박진배 총장의 환영사로 시작해 이정희 수퍼스타칼리지 학장의 인사말, 최의지 총학생회장과 김소율 자유전공학부 학회장의 축사로 이어졌다. 테이프 커팅식과 공간 소개 시간에는 참석자들이 새 공간의 모습을 둘러보며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의 새로운 활동과 RC 교육에 대한 기대감을 나눴다.

박진배 총장은 "이 공간이 학생들의 꿈을 키우고 실현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RC 교육을 통해 공동체 속에서 삶의 가치를 배우고 학문적 탐구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대 자유전공학부는 이 공간을 기반으로 공동체 교육 프로그램인 RC(Residentail College)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관계 속에서 책임감과 리더십, 공동체 의식을 키우고, 학교생활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적성과 전공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캠핑매니저 전문가 양성과정' 무료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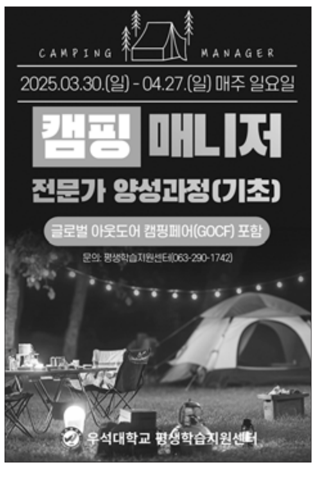
30일부터 내달 27일까지 매주 일요일 총 10차시 과정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오는 30일부터 4월 27일까지 매주 일요일 총 10차시 과정으로 '캠핑매니저 전문가 양성과정'을 무료로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캠핑산업의 성장과 여가 생활 트렌드에 발맞춰 전북특별자치도의 특색 있는 캠핑 문화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캠핑 경험 설계를 위한 기획자 양성에 중점을 뒀다.

교육 내용은 △캠핑산업의 이해 △K캠핑의 성장과 트렌드 △데이터로 보는 한국 관광 △여가와 생활 △지역자원의 이해 및 활용 △캠핑 장비 설치 운영 실습 △로컬 캠핑 기획 및 발표 △체류형 캠핑페어 현장견학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캠핑매니저 양성과정은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일환으로 민간 자격과정 개발을 위해 시범 운영된다.

박노준 총장은 "이번 양성과정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특색 있는 캠핑 문화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캠핑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며 "캠핑 산업에 대한 이해와 함께 실무 능력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과정은 캠핑산업 관련 종사자나 캠핑에 관심이 있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초등 학력신장 정책 공모사업 운영

수(업)-평(가)잡기 선도학교 등 다채… 희망 학교 신청받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초등 학력신장 정책 공모사업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모사업 분야는 △수(업)-평(가)잡기 선도학교 △초등 학력신장 시스템 △교과별 탐구노트 등이다.

먼저, 수(업)-평(가)잡기 선도학교는 수업 공개, 초등 학력신장 시스템, 교과별 탐구노트, 전북형 컴퓨터 기반 시험(CBT) 등 학력신장 정책을 수업과 평가에 적용해 학생의 교과별 학업 성취도 향상도를 검증하고 향후 학력 정책 방향성을 수립하는 데 활용된다.

지역과 규모를 고려해 도내 초등학교 중 1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어, 초등 학력신장 시스템으로는 AI 기반 맞춤형 학습콘텐츠인 '전북특별한클래스', '교과보충 프로그램', 학습플래너 '빛나라! 오늘해!' 등이 있다.

전북특별한클래스는 3~6학년을 대상으로 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학생 개인별 학습을 관리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돕는 AI 기반 맞춤형 학습콘텐츠다.

학생이 방과후나 가정에서 활용 가능하며, 올해 1만 명의 학생에게 지원된다.

교과보충 프로그램은 기존 기초학력 중심에서 '중위권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더해 6,000여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습계획-실행-성찰을 위한 학습도구인 학습플래너 '빛나라! 오늘해!'도 5만6,000부 보급된다.

특히 올해는 교과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교과별 탐구노트도 제작·보급된다.

'초등어휘사전 1600'은 교과별(국어, 수학, 사회, 과학) 주요 학습용어를 교과서 진도에 따라 뜻(한자)과 용례를 익히고, 짧은 글쓰기 등을 실행할 수 있는 학습 보조 노트다.

'초등어휘사전 1600' 활용도를 높이고자 학교-지역-도 대회로 구분해 7~10월에 걸쳐 초등어휘력대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2학기에는 수리력 향상을 위한 개념-유형-문제풀이 중심의 '초등수학개념노트', 영어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학습보조자료'도 각각 2만8,000부씩 제작·보급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초등 학력신장 정책 사업을 통해 단위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전북교육청, 심화형 흡연예방 금연실천학교 담당교사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8일 전주 왕의지밀에서 '심화형 흡연예방 금연실천학교' 담당교사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는 2025년 흡연예방 금연실천학교 운영 방안 안내와 흡연예방 금연교육 수업방법 및 심화형 학교 우수 사례 공유 등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김지영 전북대학교 교수의 '학생금연지원센터 운영 및 흡연학생 상담 방법' 강의 △송학초 김금화 교사의 '학생 참여 중심 흡연예방 금연교육 실제' 발표 △ 금성중 정문희 교사 및 김제여고 김다혜 교사의 우수사례 발표 등이다.

강양원 문예체건강과장은 "학교가 중심이 돼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금연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교사들의 역량을 키우고, 심화형 흡연예방 금연실천학교가 선도해 학생 흡연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